


제 목	담당부서	비 고
① 경북도, 美 진출 기업 CES 참가업체 기업인과 수출확대방안 논의 현지 진출애로사항 청취 및 자동차부품 업계 발전방안 협의 4차 산업 혁명시대 맞아. 기업의 적극적인 대처 요구, 다양한 지원 약속	국제통상과	 사진 별첨
② 경북도, 입학에서 취·창업까지 원스톱 고용서비스 제공! 25일(금)까지 경북형 대학일자리센터 운영대학 공모, 5~7개소 7억5천만원 지원 대학의 진로교육 확대, 취·창업 지원역량 강화	일자리청년 정책관	
③ 경북도 계약원가심사로 예산 521억원 절감 예산낭비 사전 예방, 절감된 예산 일자리 창출 등 재투자	감사관	
④ 경북도, 올해 하천사업에 1천838억원 투입! 하천재해예방 등 하천정비사업 107개소 1천708억, 유지보수사업 23시군 130억 작년 태풍 ‘콩레이’ 피해 입은 3개소 추가 반영, 홍수방어능력 증대, 수변생태 공간 창출, 관광 인프라 구축	하천과	
⑤ 다문화자녀 이중언어 능력, 자신감 향상!! 7일(월)~16일(수) 다문화가족자녀 베트남 현지 이중언어캠프 실시	여성가족 정책관	사진 별첨
⑥ 농업기술원, 2019년 연구개발 추진방향 보고회 개최 기후변화안정 생산기술 스마트팜 빅데이터 등 농업 환경변화 대응과 현장 과업력에 연구력 집중	농업기술과	사진 별첨

 경상북도	보도자료 【19. 1. 8(화)】	담당부서	일자리경제산업실 국제통상과			
		작성 자	과 장	박 노 선		
			사무관	구광모	주무관	임홍식
		연 락 처	054-880-2713			

경북도 美 진출 기업 CES 참가업체 기업인과 수출확대방안 논의

- 현지 진출애로사항 청취 및 자동차부품 업계 발전방안 협의 -
- 4차 산업 혁명시대 맞아.. 기업의 적극적인 대처 요구, 다양한 지원 약속 -

경상북도가 미주지역 무역통상 확대를 위한 본격적인 활동을 시작했다.

이철우 경북도지사는 첫날인 6일(현지시간), 앨라배마에 진출한 현대·기아자동차 1차 벤더업체인 아진 USA를 방문해 현장을 둘러봤다. 이어서 아진 USA, 화신, 세진 등 현지 법인장 및 관계자들과 간담회를 가졌다. 기업경영의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미국시장의 수출증대를 위한 기업들의 노력을 주문하는 등 대미 수출확대 방안을 논의했다.

7일엔 라스베이거스로 이동, 국제전자제품박람회(CES) 참가 기업을 비롯해 CES 참관 차 방문하는 도내 중견기업체들과 만나 4차 산업 혁명시대 자동차부품 업계의 발전방안을 논의했다.

(주)아진산업의 서중호 회장은 “그 동안 자동차부품 기업체들은 미국 통상정책에 따라 어려움이 예상됐지만 기업들과 관련 기관들과의 협력을 통해 잘 이겨낼 수 있었다” 며,

“미국 공무원은 기업경영에 도움이 된다면 적극적인 움직임이다. 경북도도 보다 적극적인 기업 친화적 노력이 필요하다” 고 말했다.

CES에 참가한 (주)원소프트다임의 이찬희 소장은 “전시회 참가를 계기로 미국, 유럽과 동남아 및 호주시장을 대상으로 보다 공격적인 마케팅 전략을 구사할 예정이다” 며,

“이번 전시회는 프리미엄 제품과 전문가용 제품을 신규 출시하는 자리로 현지 마케팅 및 투자유치를 병행하고 대학연계 프로젝트를 통해 전자제품판매점, 병원과 학교, 비즈니스(전문가) 모델로 나눠서 현지 시장을 개척할 계획이다” 고 밝혔다.


도내 자동차부품 수출은 지난해 11월 말 현재 12억9천만 달러로서 이중 대미수출이 5억8천만 달러(44%)를 차지한다. 매년 수출량이 증가하고 있어, 자동차부품업체의 수출증대를 위한 무역사절단 파견, 국제전시 박람회 참가 지원 등 다양한 지원을 확대하기로 했다.

이철우 경상북도지사는 “미국이 세계를 이끈 것은 기업 위주로 운영했기 때문이다. 우리도 기업유치를 고용 위주로 가야한다. 기업위주의 대한민국을 만드는데 경북도가 앞장서겠다” 고 했다.

또한, “CES와 연계한 경북도 자동차부품 업계의 벤치마킹 분야를 발굴해 전기, 수소 및 다양한 신재생에너지 자동차시대를 선도하는 수출품목의 집중육성이 필요하다” 며,

“이를 위해 경북도는 신소재개발과 4차 산업시대의 자동차부품산업의 고도화를 위한 예산확보 및 지원에 최선을 다할 계획이다” 고 했다.

붙임 사진자료

 경상북도	보도자료 【19. 1. 8(화)】	담당부서	일자리경제산업실 일자리청년정책관			
		작 성 자	정책관	박 성 근		
			사무관	엄태현	주무관	이선영
		연 락 처	054-880-2761			

경북도, 입학에서 취·창업까지 원스톱 고용서비스 제공!

- 25일(금)까지 경북형 대학일자리센터 운영대학 공모, 5~7개소 7억5천만원 지원 -
- 대학의 진로교육 확대, 취·창업 지원역량 강화 -

경상북도는 대학의 진로교육 확대와 취·창업 지원역량 강화를 위해 ‘경북형 대학일자리센터’ 운영대학을 25일(금)까지 공모한다고 밝혔다.

경북도는 5~7개소를 선정해 학교당 연간 1억~1억5천만원(도40%, 시군 40%, 대학 20%), 총7억5천만원을 지원할 계획이다.

‘대학일자리센터’는 대학 내에 흩어져 있는 진로 및 취·창업 지원 기능을 공간적으로 통합하거나 기능적으로 연계해, 저학년부터 진로 선택과 취·창업 준비를 위한 특화된 고용서비스를 제공한다.

‘경북형 대학일자리센터’ 지원사업은 취업체계가 취약한 도내대학의 취업지원관 채용 및 취·창업지원 프로그램 운영을 지원하고, 정부 및 경북도 청년 일자리 사업과 연계 추진해 입학에서 취업까지 원스톱 취업서비스를 지원할 방침이다.

이번 공모는 전문가로 구성된 심사위원회에서 △진로 및 취·창업지원 인프라 구축 △진로지도 및 취·창업지원 서비스 강화 부분 등 종합적으로 판단해 사업규모 및 사업비를 확정하게 되며, 선정된 대학은 지원 약정체결 후 3월부터 사업을 추진하게 된다.

또한, 선정대학은 최대 5년간 지원받을 수 있으며 매년 평가를 통해 지원여부가 결정된다.

한편, 경북도는 고용노동부 대학일자리센터 공모사업에 11개(대형 7, 소형 4) 대학이 선정돼, 대형사업에 5~6억원, 소형사업에 2억원(고용부 50%, 도·시군 25%, 대학 25%)을 지원받아 운영 중에 있다.

대형사업은 지역의 대학생 및 청년들에게 취·창업 활동을 지원하는 거버넌스 역할을 하고 있으며, 소형사업·경북형 사업과 함께 분산된 고용정보를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취업·창업 서비스 기반을 구축으로 대학일자리센터가 핵심적 전달체계 역할을 수행한다.

박성근 경북도 일자리청년정책관은 “지역대학 학생들이 대학일자리센터 전문상담사의 진로컨설팅과 체계적인 취·창업 프로그램 운영을 통해 보다 빨리 진로를 설계하고 취·창업에 큰 도움이 되기를 기대한다” 고 말했다.

공모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경상북도 인터넷 홈페이지(<http://www.gb.go.kr>) 공고를 참고하고 신청서는 경상북도 일자리청년정책관(054-880-2761)에 제출하면 된다.

 경상북도	보도자료 【19. 1. 8(화)】	담당부서	감사관			
		작성자	감사관	이창재		
			사무관	이동구	주무관	권윤희
		연락처	054-880-4374			

경북도 계약원가심사로 예산 521억원 절감

- 예산낭비 사전 예방, 절감된 예산 일자리 창출 등 재투자 -

경상북도는 계약원가심사로 521억원의 예산을 절감했다고 밝혔다.

계약원가심사 제도는 예산낭비를 방지하고 효율적인 재정운영을 위해 지방자치단체가 발주하는 사업의 원가산정, 공법선택, 설계변경 적정성 등을 심사하는 제도다.

도는 지난해 본청, 직속기관, 사업소, 시·군 등을 대상으로 공사, 용역, 물품구매 등 715건 7천195억원에 대해 계약 전(前) 원가심사를 통해 521억원(절감률 7.2%)을 절감했다.

토목·건축공사 428건에 459억원, 용역 202건에 57억원, 물품구매 등 85건에 5억원을 줄였다.

주요 절감 사례로 △공사분야에서는 성주2일반산업단지 연결도로사업의 사토 운반 장비를 덤프 15ton에서 24ton으로 조정하고, 철근가공을 현장이 아닌 공장가공으로 조정하는 등 15억원을 절감했다. 또한 의성 반려동물 문화센터 건립공사에서 사급자재인 메쉬웬스, 파고라를 관급자재로 조정하는 등 14억원을 절감했다.

△용역분야는 수륜면 농촌중심지 활성화사업 설계용역에 불필요한 노선 측량 및 품질 시험비 제외 등으로 2억원을 절감했다.

△설계변경분야는 혈티재지구 붕괴위험지역 정비공사의 발파암 유용 시 기계 소할(小割) 물량은 유용량의 15%적용으로 6천만원을 절감했다.

이러한 성과는 실무 경험이 풍부하고 전문지식을 갖춘 공무원을 심사 부서에 배치하고, 업무 매뉴얼 작성, 심사 사례집 제작, 워크숍 개최 등 담당 공무원의 원가심사 역량을 지속적으로 강화했기 때문에 가능했다.

도는 절감된 예산을 투자유치 및 일자리 창출 등에 재투자해 지역 경제를 활성화시키고, 부실공사를 예방해 공사의 안전성을 높이는 등 일거양득의 효과를 나타냈다.

이창재 경북도 감사관은 “내실 있는 원가심사를 위해 올해 개정된 설계기준 설명, 원가심사 우수 절감 사례를 전파하고, 대규모 복합공사는 찾아가는 현장 원가심사로 심사기간을 단축해 지방재정이 조기 집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고 했다.

한편, 경북도는 2008년부터 2018년까지 10년 동안 7천593건에 대한 계약심사로 5천672억원의 예산을 절감했다.

참고 1

2018년 계약원가심사 실적

□ 총괄

(단위 : 백만원)

구분	건수	심사요청	심사결과	절감액	비고
계	715	719,509	667,403	52,106	7.24%
1월	54	78,663	71,804	6,756	8.59%
2월	55	42,834	39,971	2,863	6.68%
3월	116	75,620	69,965	5,655	7.48%
4월	70	50,888	48,324	2,564	5.04%
5월	79	87,838	81,894	5,944	6.77%
6월	52	44,606	42,403	2,203	4.94%
7월	47	47,935	45,583	2,352	4.91%
8월	51	52,870	48,913	3,957	7.48%
9월	30	35,421	33,337	2,084	5.88%
10월	47	65,108	59,825	5,386	8.27%
11월	77	92,068	84,468	7,600	8.25%
12월	37	45,658	40,916	4,742	10.39%

□ 유형별

(단위 : 백만원)

구분	건수	심사요청	심사결과	절감액	비고
계	715	719,509	667,403	52,106	7.24%
토목공사	329	437,088	399,920	37,168	8.50%
건축공사	99	146,219	137,524	8,694	5.95%
용역	202	120,835	115,090	5,746	4.76%
물품등	85	15,367	14,869	498	3.24%

□ 발주기관별

(단위 : 백만원)

구분	건수	심사요청	심사결과	절감액	비고
계	715	719,509	667,403	52,106	7.24%
분청	82	60,657	59,432	1,225	2.02%
사업소	92	56,376	53,754	2,621	4.65%
출연기관	37	23,304	22,602	702	3.01%
시·군	504	579,172	531,615	47,558	8.21%

참고 2

2008년~2018년까지 계약원가심사 실적

□ 총괄

(단위 : 백만원)

구분	건수	심사요청	심사결과	절감액	비고
계	7,593	8,483,518	7,916,251	567,267	6.7%
2008년(9~12월)	66	120,899	115,359	5,540	4.6%
2009년	526	826,172	791,566	34,606	4.2%
2010년	596	816,678	781,602	35,076	4.3%
2011년	917	946,399	911,065	35,334	3.7%
2012년	1,034	1,025,117	958,992	66,125	6.5%
2013년	836	844,001	757,588	86,413	10.2%
2014년	707	817,274	748,597	68,677	8.4%
2015년	763	833,192	772,834	60,358	7.2%
2016년	751	808,481	743,008	65,473	8.1%
2017년	682	725,796	668,237	57,559	7.9%
2018년	715	719,509	667,403	52,106	7.2%

□ 유형별


(단위 : 백만원)

구분	건수	심사요청	심사결과	절감액	비고
계	7,593	8,483,518	7,916,251	567,267	6.7%
토목공사	3,519	5,301,457	4,931,825	369,632	7.0%
건축공사	1,003	1,683,959	1,592,057	91,901	5.5%
용역	2,019	1,370,910	1,274,235	96,676	7.1%
물품·통신등	1,052	127,192	118,134	9,058	7.1%

□ 발주기관별

(단위 : 백만원)

구분	건수	심사요청	심사결과	절감액	비고
계	7,593	8,483,518	7,916,251	567,267	6.7%
본청	965	688,896	657,498	31,398	4.6%
사업소	940	568,132	536,935	31,196	5.5%
출연기관	5,381	926,391	850,143	76,249	8.2%
시·군	307	6,300,099	5,871,675	428,424	6.8%

 경상북도	보도자료 【19. 1. 8(화)】	담당부서	건설도시국 하천과			
		작 성 자	과 장	배 만 규		
			사무관	이성균	주무관	장계준
		연 락 처	054-880-4068			

경북도, 올해 하천사업에 1천838억원 투입!

- 하천재해예방 등 하천정비사업 107개소 1천708억, 유지보수사업 23시군 130억 -
- 작년 태풍 '콩레이' 피해 입은 3개소 추가 반영, 홍수방어능력증대, 수변생태 공간창출, 관광 인프라 구축 -

경상북도는 금년도 하천사업에 23개 시·군 107개소 1천838억원(국비 965, 지방비 873)을 투입한다고 밝혔다.

지역의 SOC분야 일자리창출 및 경제 활성화를 위해 하천정비사업비를 금년 3월까지 조기발주하고 상반기 중에 당해연도 예산의 60%를 집행할 계획이다.

사업별 내용을 보면 하천기본계획수립 47개소(288km) 42억원, 하천재해 예방사업 58개소(51km) 1,624억원, 고향의 강 정비사업 2개소(1km) 42억원을 투입하고, 23개 시군에 130억원을 들여 하천유지보수사업을 추진한다.

특히, 지난해 10월 태풍 콩레이와 집중호우로 인해 하천제방유실, 구조물 파손 등 하천정비가 시급한 구간 3개소(영덕 지경천, 축산천과 청도 동창천)는 국토부 등 관계부처와 지속적인 협의 후 추가로 국가지원 사업으로 반영됐다.

한편, 경북도는 지방하천 종합정비계획(299개소 1,871km, 총사업비 5조 3,405억원)을 5개의 단위사업(하천재해예방, 고향의 강 정비, 생태하천 조성, 물순환형 하천정비, 지역발전연계 공모)으로 나눠 추진하고 있다.

하천재해예방사업은 2009년~2025년(26년)까지 총268지구 1,680km에 4조 6,865억원을 투자하는 계획으로, 홍수 방어능력 극대화를 위한 치수안전성 확보 등 도민의 생명과 재산의 보호를 위해 최우선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고향의 강 정비사업은 2009년~2019년(10년)까지 총12지구 65.6km에 2,944억원을 투자한다. 자전거길, 탐방로 설치, 여가문화 인프라 구축 등 지역특성을 고려한 전략적인 수변 공간 창출로 하천을 지역의 대표적인 복합 문화공간으로 조성하고 있다.

생태하천 조성사업은 2009년~2016(7년)까지 총17지구 102.9km, 총사업비 2,008억원이 투자 완료된 사업이다. 경작지 정리, 초지조성 등 다양한 생태공간 조성을 통한 하천의 생태잠재능력 회복으로 생물 다양성 증진 및 다양한 생물서식처를 제공하는 생태복원사업을 추진했다.

물순환형 하천정비사업은 2011년~2018년(8년)까지 총2지구 22.9km, 총사업비 652억원을 투자, 본류의 유량을 인근 도시하천의 유지용수로 활용해 하천 환경사업으로 추진했다.

지역발전 연계사업인 신당천(경주), 초곡천(문경), 회천(고령)은 하천의 다양한 기능을 고려한 하천사업과 주변지역 사업(문화, 복지, 관광, 레저, 환경개선, 도시재생 등)을 연계할 수 있는 패키지형 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다.

최대진 경북도 건설도시국장은 “매년 국비집행 실적거양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고, 지역 국회의원과 중앙부처에 지방의 열악한 재정상황 설명과 주요 현안사업에 대해 적극적인 건의를 통해 확보한 예산인 만큼, 예산집행에 철저를 기해 도민의 안전과 지역경제를 활성화시키는데 최선을 다하겠다” 고 말했다.

 경상북도	보도자료 【19. 1. 8(화)】	담당부서	여성가족정책관			
		작성 자	정책관	조 광 래		
			사무관	김형현	주무관	김민영
		연 락 처	054-880-4550			

다문화자녀 이중언어 능력, 자신감 향상!!

- 7일(월)~16일(수) 다문화가족자녀 베트남 현지 이중언어캠프 실시 -

경상북도는 다문화가족 자녀의 강점인 이중언어 능력을 강화해 미래 글로벌 인재로 키우기 위한 ‘다문화가족자녀 베트남 현지 이중언어 캠프’를 운영한다고 밝혀 눈길을 끌고 있다.

이번 캠프는 7일(월)부터 16일(수)까지 열흘간 베트남 칸화성에 위치한 칸화대학교에서 열린다.

도내 베트남 출신 다문화가정 초·중등 자녀 중 이중언어대회 수상자, 국내캠프 성적우수자 등 20명을 대상으로, 베트남 현지 대학에서 이중언어 집중학습, 베트남 문화이해 및 탐방, 현지 대학생들과의 멘토링 학습 등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집중훈련을 한다.

이중언어 국내·외캠프는 道가 전국 유일하게 조성·운영 중인 다문화가족 지원기금사업으로 추진하는 다문화자녀 글로벌 인재육성 지원사업의 일환이다.


경북도는 2014년 65억원의 다문화가족지원기금을 조성해 2015년 베트남어를 시작으로 매년 베트남 및 중국 등에서 이중언어 국외 현지캠프를 개최하고 있다.

또한 오는 1월말과 8월에는 10일간의 국내 이중언어캠프를 실시하고, 9월에는 ‘전국 이중언어대회’를 개최해 다문화가정 자녀들의 이중언어 구사 능력을 강화시켜 또래 집단 등 사회생활에 대한 자심감과 자긍심 고취, 문화적 정체성을 강화시켜 나갈 계획이다.

조광래 경북도 여성가족정책관은 “다문화가족자녀에게는 어릴 때부터 자연스럽게 두 개의 언어를 접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면서,

“경북도는 이들의 강점을 활용해 글로벌 인재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붙임 사진자료

 경상북도	보 도 자 료 【19. 1. 8(화)】	담당부서	농업기술원 작물연구과			
		작 성 자	과 장	권 태 영		
			팀 장	김상국	담당자	최진국
		연 락 처	053-320-0338			

농업기술원, 2019년 연구개발 추진방향 보고회 개최

- 기후변화 안정 생산 기술, 스마트팜, 빅데이터 등 농업 환경변화 대응과 현장 파급력에 연구력 집중 -

경상북도 농업기술원은 3일(목)부터 4일(금)까지 19개 연구팀별로 ‘2019년도 농업과학기술 연구개발사업 추진방향 보고회’를 개최했다.

이번 보고회는 농업 글로벌 경쟁력 확보와 소비 트렌드 변화에 적극적으로 대처하고자, 농정 시책과 농업인이 필요로 하는 현장 파급력이 큰 과제를 우선적으로 선정해 실시됐다.

올해 역점 추진 과제로 기후변화 대응 안정 생산 기술 개발, 스마트팜을 활용한 작목별 생산 기술 연구, 빅-데이터를 활용한 농작물 병해충 예보시스템 구축, 기능성 소득작물 발굴 및 특산화 연구 등을 꼽았다.

농업기술원은 이번 보고회를 통해 농업인이 필요로 하는 현장과제를 1차 선별한 후, 14일(월)부터 3일간 시행되는 ‘2019년도 연구과제 심의회’를 거쳐, 오는 30일(수) 내외부 전문가들의 최종심의를 통해 올해 추진할 연구 과제를 선정할 계획이다.

한편, 농업기술원은 작년 추진한 연구개발사업을 통해 수출용 딸기 품종인 ‘빅스타’를 비롯해 산딸기, 딸기, 장미, 참깨 등 7개 작목에서 12개의 신제품종과, ‘산딸기 원줄기 유인장치’ 등 17건의 특허기술을 개발했고, ‘착즙용 복숭아 제핵기’ 등 특허 13건과 복숭아 ‘수백’ 등 신제품종 2건을 기술 이전했다.

김세종 경북도 농업기술원 연구개발국장은 “2019년 도정 신년화두가 환골탈태인 만큼 연구직 공무원과 연구 방향도 환골탈태의 마음으로 연구에 임해야 한다”고 강조하며,

“4차 산업혁명 시대에 기술혁신을 통한 경북농업의 새로운 도약의 기회를 마련하고, 우리 농촌·농업이 직면한 개방화와 농업인구 감소, 고령화, 기상 이변 등의 여러 어려운 현실을 극복하는데 연구역량을 집중해 나가겠다” 고 했다.

붙임 사진자료